

현대제철 비정규직 2천여 명 파업 결행... “정의선이 결단하라”

금속노조, 개정 노조법 무력화하는 현대제철 규탄하며 ‘원청교섭 쟁취’ 총력 투쟁 예고

하루 파업을 결행하여 생산을 멈춘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2천여 명이 집결해 진짜 사장인 원청과의 대화를 촉구했다.

금속노조가 24일 오후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앞에서 ‘현대제철 원청교섭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번 파업은 정당한 쟁의권에 기반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제철 원청을 비정규직 지회의 교섭 상대로 인정하며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고, 이를 통해 지회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획득했다. 또한, 지난해 7월 서울행정법원 역시 원청인 현대제철이 교섭을 거부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판결했다.

이러한 잇따른 사용자성 판단과 노조법 개정 시행에도 불구하고 현대제철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올해 금속노조가 2026년 원청교섭을 5차례나 요구했지만, 현대제철은 교섭요구사실 공고조차 게시하지 않았다. 1차 상견례와 2차 교섭에도 사측은 전면 불참했다.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올해 금속노조의 핵심 과제는 원청교섭과 초기업교섭이다. 원청교섭 쟁취가 이뤄지지 않으면 올해 중앙교섭을 조기에 마치지 않겠다”라며, “7, 8, 9월 총파업으로 원청교섭 쟁취하는 그날까지 동지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 밝혔다.



뒤이어 투쟁사에 나선 박근서 노조 광주전남지부장은 “순천공장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 판단을 내리고 정규직 전환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현대 자본은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투쟁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상호 노조 충남지부장 역시 “원청교섭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현대차가 통제하고 관

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올해 양재동에서의 투쟁을 승리로 마무리 짓지 않으면 향후 투쟁도 담보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다음 발언자로 나선 이원갑 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교섭위원은 “씻물을 만들고 철을 생산해 포장, 출하, 판매하는 모든 과정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손길이 안 가는 곳이 없다”라며, “총단결해 현대 자본을 교섭 자리로 끌어내 온전한 고용 보장과 직접 고용을 이뤄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결의대회가 현대제철이 아닌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앞에서 열린 이유는 명확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원청교섭이 진전되지 않는 근본 원인이 모든 그룹사의 원청교섭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현대차그룹 본사에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현대제철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벌의 원청교섭 역시 그룹 방침에 가로막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조재결 노조 광전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현대제철 사장의 인사 발령부터 이 모든 것을 결재하고 명령을 내리는 정점은 바로 정의선 회장”이라며, “현대제철 원청이 교섭에 나서지 않는다면 다음 투쟁은 정의선 회장이 무릎 꿇고 사죄할 때까지 이어질 것”

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어 발언을 시작한 정형모 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내화조업정비지회장은 “현장에서는 매년 수많은 사고가 나고 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치고 있지만 원청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라며, “우리는 철로 만든 기계가 아닌 피가 흐르는 사람이자 누군가의 가족이다, 다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식이 통하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투쟁사에 나선 최명식 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우리의 고용, 노동 조건, 심지어 안전 문제까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원청인 현대제철이기 때문에 원청교섭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잣대로 우리가 나뉘기 전에 원청교섭을 통해 우리의 염원인 직접 고용을 반드시 쟁취하자”라고 호소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하청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정점에 현대차그룹의 우두머리인 정의선 회장이 있음을 지적하며 그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우리는 올해를 원청교섭 쟁취 원년의 해로 만들 것을 분명히 한다”라며, 오늘을 기점으로 더 강력하고 지속적인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것을 다짐했다.